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21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 와크라 경기장에서 이란과의 8강전을 앞두고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박지성과 구자철 등 선수들이 패스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깨고 휴일 '4강 낭보' 쏜다

내일 새벽 亞컵 8강전 5회 연속 맞대결

한국 우승 최대 난관 "공격축구로 격파"

한국과 이란이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에서 5회 연속 맞붙는다.

2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시25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한국과 이란의 8강은 '클래식 매치'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1996년 11회 대회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 8강에서 계속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1996년 이란이 한국을 6-2로 물리친 이후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는 한국이 2-1로 이겨 빚을 갚았고 2004년 중국 대회에서 이란이 4-3으로 이겨 다시 한발 앞서 나갔다.

2007년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4-2로 승리, 순서상으로는 이번에는 이란이 이길 차례다. 그러나 51년 만에 '왕의 귀환'을 노리는 한국은 이란을 제물 삼아 4강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는 한국이 39위로 65위인 이란보다 앞서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8승7무9패로 오히려 한 번 더 졌다. 최근 6경기에서도 4무2패로 열세다.

◇양팀 예상 베스트 11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중앙 수비 자리에 조금씩 변화를 준 것을 제외하고는 매번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이란전에서도 이런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훈련에서 조별리그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선수들이 주황색 조끼를 입었고 중앙 수비에는 이정수(31·알사드)와 황재원(30·수원)이 주전으로 나섰다. 조별리그 1차전과 3차전에 선발로 출전했던 곽태휘(30·교토상가)는 두 경기에서 모두 페널티킥을 허용한 탓에 일단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다.

반면 이란은 세 경기에서 모두 다른 선발 엔트리를 구성했다. 1,2차전 내리 선발로 나온 선수는 5명뿐이었다. 4-2-3-1 또는 4-4-2 전술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란은 이라크와 1차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주로 한국과 8강에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성, 첫 골과 센추리 클럽 축포 쏠까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이 경기가 큰 의미가 있다. 아버지 박성종 씨가 전한 대표팀 은퇴 의사대로라면 자칫 이 경기가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매치 98경기에 출전한 박지성은 이란과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준결승에서 자신의 A매치 1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다. 또 아시안컵에서 11경기에 나왔지만 아직 골 맛을 보지 못한 박지성으로서는 직접 축포를 쏘아 올리며 자신의 '센추리 클럽' 가입을 자축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다.

◇지동원-구자철 '이란전 좋은 추억'

이번 대회 들어 한국 축구 대표팀 공격 라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지동원(20·전남)과 구자철(22·제주)은 이란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란과 3-4위 전에서 지동원은 두 골, 구자철은 한 골을 넣으며 4-3 대역전승에 발판을 놨기 때문이다. 지동원은 이번 대회에서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구자철은 4골, 2어시스트로 맹활약 중이다. 구자철은 득점과 어시스트, 지동원은 어시스트에서 모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 경쟁을 이어가려면 8강전 승리는 필수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간판 이용대·정재성 조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2연패 도전

한국 셔틀콕 '간판' 이용대(23)-정재성(29·이하 삼성전기) 듀오가 2011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25-30일·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남자복식 2연패 달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용대는 2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치러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첫 프리미어 대회여서 꼭 우승하고 싶다"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회인 만큼 1회전부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의 수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버금간다.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며 "첫 단추를 잘 껴야 올해 치러질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대와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정재성도 "2연패를 하겠다는 각오뿐이다. 8강에서 인도네시아의 벽을 넘어야만 4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들을 만난다. 8강이 가장 중요한 경기다"고 강조했다.

빅터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는 세계랭킹 10위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는 대회여서 수준이 올림픽에 버금간다. 대회 상금도 총 120만 달러(약 14억원)에 달해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지난해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이용대-정재성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지만 곧바로 치러진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선수권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동계아시안게임 결단식 "金 10개로 3위 수성"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과 제25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결단식을 열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동계아시안게임 대표팀 단장인 김종욱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표팀 단장인 김영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명예총무를 비롯해 김정행 대한체육회 부회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참석했다.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80여 명과 동계유니버시아드 선수단 70여 명도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에서 열리는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에는 26개국에서 1100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5종목에 150명이 참가한다. 2007년 일본에 밀려 3위를 차지한 한국은 홈팀인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도전 속에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3위를 지키는 게 1차 목표다.

한국은 9개 종목에서 125명을 파견한다. 본진은 24일 오후 2시35분 출국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강순구(광주중학교 교감)·김형순씨 장남 병완(전대의대 안과 전공의)군 고재환(나주중학교 교사)·박미숙씨 장녀 한라(전대의대 내과 전공의)양=22일(토) 오후 5시 홀리데이인 호텔 3층(켄벤션홀)

▲양재호(전남대교수)·김여애씨 아들 환서(군의관)군 김동희(전남대 교수)·김인희씨 딸 미름(국립의료원 의사)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교원공제회관 3층.

▲이영동(전 롯데손해보험(전 대한화재) 대표이사 사장·부회장)·안명옥씨 차남 광원(서울 연세본치과 원장)군 김혁종(광주대 총장)·송숙남씨 장녀 유진(무대와의상 디자이너)양=23일(일) 낮 12시 30분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송자섭(전남도청 도로교통과장)·류양희씨 장남 상현(조대병원 피부과)군 조충환(덕흥종합건설㈜ 대표)·황경자씨 장녀 우리(광주은행)양=23일(일) 오후 1시 홀리데이인광주 호텔 3층(컨벤션홀)

▲김용식·최채숙씨 장남 찬중군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장)·박명순씨 차녀 현정양=23일(일) 오후 1시 전주 전동성당. 광주는 전남대 용봉탑에서 오전 10시 출발.

▲정학태(서광주세무서 조사계장)·윤정단씨 아들 준영군 고정화씨 딸 고은실양=23일(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062-380-5651.

부음

▲정사성씨 별세 종달·순자·연자·순애·홍심·효성씨 부친상=발인 2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길만 님(남/67세)
子/子婦 : 박성준 / 여경옥
女/壻 : 박윤경, 윤자/이경수, 향미/김인철
• 호실401호 • 발인:1월 22일 • 장지:영락공원

故 김병수 님(남/63세)
子 : 김명훈, 명환
女/壻 : 김현주/최용건
• 호실402호 • 발인:1월 22일 • 장지:영락공원

故 김수철 님(남/83세)
子/子婦 : 김경호 / 한옥자
女/壻 : 김옥자 / 김종석
경옥
경하 / 조형태
경미 / 조 반
경희 / 임철수
경림
• 호실201호 • 발인:1월 23일 • 장지:담양천주교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류종호·태춘·진호 씨 모친상 고광수씨 빙모상 발인:1월22일(토) 08시00분 장지: 광산구 덕림동 선영(영락) 연락처:250-4410
▲허훈무·재석씨 부친상 윤대웅·김준수씨 빙부상 발인:1월22일(토) 13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250-4409
▲정정택·인택·광택·흥택·금택·철문씨 모친상 김중곤·정종주씨 빙모상 발인:1월23일(일) 10시00분 장지: 담양 남면 연락처: 250-4413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인 사

◆목포시

◇5급 승진 ▲원산동장 이옥재 ▲동명동장 고재승 ▲이로동장 김천환 ▲부흥동장 김황용 ◇5급 승진의결(교육입교 대상자) ▲감사실 감사담당 선종삼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신현청 ▲〃 예산담당 김웅민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김규웅 ▲관광기획과 관광기획담당 조건형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김득재 ▲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박상범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손상돈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이완근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재개발과 재건축담당 서태빈 ◇5급 전보 ▲감사실장 김치중 ▲회계과장 김문옥 ▲자치행정과장 김찬익 ▲비서실장 김창옥 ▲가정복지과장 김창호 ▲투자통상과장 심인섭 ▲관광사업과장 한순덕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건축행정과장 박옥주 ▲건설과장 박동길 ▲경관사업과장 박경곤 ▲보건사업과장 박영호 ▲문화예술과장 손관기 ▲스포츠산업과장 전몽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영용 ▲목포자연사박물관장 박남재 ▲상하수도행정과장 임재호 ▲하수과장 조용선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장 김준철 ▲〃 원도심재개발과장 윤인영 ▲용당1동장 김진원 ▲연산동장 김광률 ▲대성동장 박종열 ▲용해동장 남상윤 ▲신흥동장 최상근 ▲유달동장 직무대리 정병술 ▲북항동장 직무대리 박종학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M급 ▲전남경제사업부 부본부장 한재식 ▲전남금융사업부 부본부장 이원호 ▲동광주지점장 김충현 ▲강진군지부 박남석 ▲고흥군지부 정경찬 ▲광양시 지부장 이성문 ▲구례군 〃 최창수 ▲나주시 〃 최명수 ▲담양군 〃 조영환 ▲목포신안시군 〃 문명식 ▲신목포 지점장 김용민 ▲보성군 지부장 조덕훈 ▲남순천 지점장 문영홍 ▲동순천 〃 임재성 ▲북순천 〃 송관용 ▲순천중앙 〃 김귀남 ▲여수시지부 정병길 ▲신여수 지점장 우학준 ▲영광군지부 김영식 ▲영암군 지부장 전갑석 ▲장성군지부 안종균 ▲장흥군지부 위남량 ▲함평군지부 김양권 ▲해남군지부 김종인

◇3급 ▲전남경제사업부 노정용 ▲전남금융사업부 황준연 ▲〃 강형구 ▲전남조합경영검사팀 검사역 최양균 ▲〃 이현인 ▲〃 양기석 ▲동광주지점 김일수 ▲〃 조건도 ▲동광주기업금융지점장 김영석 ▲동광주기업금융지점 박승우 ▲〃 김선윤 ▲강진군지부 문두억 ▲곡성군지부 사종영 ▲광양시지부 박화정 ▲〃 김회천 ▲동광양지점장 양해식 ▲구례군지부 정성만 ▲나주시지부 강효석 ▲〃 김진갑 ▲〃 신재서 ▲담양군지부 김현철 ▲목포신안시군지부 정경휘 ▲목포2호광장지점 허현준 ▲목포중앙지점장 한수길 ▲목포중앙지점 한송록 ▲자유시장지점장 안병량 ▲무안군지부 정선중 ▲〃 신형철 ▲〃김지환 ▲순천시지부 이상진 ▲〃 신하수 ▲〃 서재식 ▲동순천지점 정재헌 ▲순천중앙지점 손용철 ▲여수시지부 배재복 ▲〃 김종우 ▲영광군지부 배근호 ▲〃 박금현 ▲영암군지부 최재용 ▲완도군지부 한상옥 ▲장흥군지부 김용수 ▲진도군지부 서재국 ▲함평군지부 성길호 ▲해남군지부 서익호 ▲〃 박길수 ▲화순군지부 윤평순 ▲〃 김천국